

엄마의 나무

김영은

엄마는 언제나 베란다 앞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았다. 15층짜리 아파트의 2층에 있는 우리 집은 전망이라고는 100미터 전방의 맞은편 아파트 한 동과 우리 집 베란다에 바짝 붙어서 있는 큰 나무 한 그루가 전부였다. 썩 경치 좋은 풍경이라 할 수 없는 전망의 베란다에서 엄마는 늘 밖을 바라보았다.

이혼과 소유권 이전 등기, 부당 이득, 총 3개의 소장이 한꺼번에 날아온 후로 엄마는 베란다에 붙박이처럼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아마도 속이 시끄러워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엄마는 밖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풍경을 감상하겠다는 목적보다는 그저 마음이 답답해서,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밖에 시선을 둔 것일 뿐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엄마의 평온한 하루를 위해 베란다 앞에 앉아 밖을 내다보는 엄마를 나는 무심하게 지나쳤다. 내가 출근할 때도 엄마는 베란다 앞에 앉아있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엄마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림처럼 앉아있었다.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아니었다. 원고 측은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처음 겪는 이혼, 재산분할 소송은 엄마를 더욱더 궁지로 몰아넣었다. 엄마가 35년간 힘들게 일군 가정이, 고작 소장 몇 장으로 파괴되고 있었다. 이혼 소장의 문장들은 서슬 퍼렇게 날이 선 칼날이 되어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우리말 한글이 이렇게나 잔인하고도 흉측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었다. 엄마의 35년 결혼생활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당하는 순간, 엄마는 무슨 마음으로 베란다 앞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을까. 베란다 밖 풍경이라도 좀 멋들어졌더라면 엄마에게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어느 날, 엄마는 드디어 일어섰다. 베란다 창문을 닫고 코트를 걸치고 몇 가지 서류를 정리해 법무사를 찾아갔다. 답변서를 제출하고 온 날, 엄마는 난(蘭)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법무사 사무실에 있던 난(蘭)이라고 했다. 법무사가 사무실을 개업한 후 수개월째 방치한 난(蘭) 하나가 엄마 손에 이끌려 우리 집에 들어왔다.

그날 이후 엄마는 베란다에 난(蘭) 하나를 놓아두고 온 정성을 쏟았다. 난(蘭) 잎사귀마다 마른 손수건으로 문질러주고, 식물에 주는 영양제도 사다가 꽃아주고, 물을 줄 때는 꼭 수돗물을 받아놓고 하루 정도 묵혔다가 주었다.

그리고 며칠 후,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온 날, 엄마는 또 법무사 사무실에서 난(蘭)을 하나 더 들고 돌아왔다. 그 난(蘭)

역시 몇 달째 별도 못 보고 잎이 바싹 말라버려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였다.

한 달 후, 우리 집 베란다에는 법무사 사무실 출신의 난(蘭) 5개와 아파트 관리소에서 파양한 아이비, 산세비에리아 몇 개가 일렬종대로 늘어서 베란다가 풀썩을 이루게 되었다. 거기에 나는 스투키 하나를 더 보탤다. 엄마에게 선물로 사드렸다면 좋았겠지만 내 스투키는 내가 근무하는 학원의 원장실에서 죽어가던 것을 가져온 것이었다. 스투키 끝이 말라서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던 차였다.

나는 식물에 도통 관심이 없었는데 엄마가 베란다에 줄 세워 놓은 식물들이 하나씩 생기를 찾는 것을 보니, 스투키도 살리면 좋겠다 싶어서,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죽어가던 스투키도 살려내려 노력하는 엄마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다. 베란다에 앉아 밖을 바라보는 엄마의 무기력한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 엄마에게 일거리 하나를 더 투척한 셈이었다.

어차피 소송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고, 우리는 살아야 했고, 엄마에게는 마음을 다스릴 소일거리가 필요했다. 엄마가 죽어가는 식물에 생기를 불어넣듯, 식물들도 엄마에게 생기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자연이 사람을 치유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구체적으로 자연이, 식물이 사람에게 어떤 작용을 해서 사람을 치유하기까지 한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엄마에게 걸려있는 각종 소송들이 엄마의 명치에 딱 걸려서 엄마는 소화를 잘 못 시켰다. 먹는 음식마다 소화가 안 되고 체해서 매일 저녁 나는 엄마의 등을 툭툭 두드렸다. 아무리 세게 두드려도 엄마는 답답하다고 했다.

동네병원에서는 진료기록을 줄 테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그리고 진행성 위암 3기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를 급히 잡았다.

엄마는 다시, 베란다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엄마의 난(蘭)과 탐스럽게 줄기를 뻗어가는 아이비, 색이 선명해진 산세비에리아는 날이 갈수록 살아나고 스투키는 이제 분갈이를 해서 화분이 3개나 더 늘어났는데 엄마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식물을 살리듯, 엄마를 살릴 수는 없을까. 베란다 밖을 향한 엄마의 시선을 다시 식물에 돌릴 수는 없을까. 엄마의 절망은 소송이 끝이 아니었다. 절망 끝에는 희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삶은 왜 엄마에게만 이토록 가혹한 것인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원망과 한탄과 눈물로 보낸 6개월.

엄마는 실패한 수술과 항암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면서도 언제나처럼 다시, 베란다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병간호를 하던 나는, 가끔 짐을 가지러 집에 오면 의무적으로 베란다에 가서 엄마가 키운 식물에 물을 주었다. 수돗물을 하루 목혀줄 형편은 아니었지만 엄마의 식물들이 왜인지 엄마의 분신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성을 쏟을 시간은 없어도 살려놓기는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집에 올 때마다 식물들에 물을 주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엄마는 여전히 베란다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큰 나무가 그날따라 유난히 가을바람에 흔들리더니 계속 우리 집 베란다 창문을 툭 툭 건드리며 소리를 냈다. 아픔이 밀려오는지 엄마는 나무를 바라보다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그래도 엄마는 그 나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엄마의 뒷모습이 처연해 나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앙상하게 말라버린 엄마의 몸은, 엄마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게 내가 본 엄마의 마지막 뒷모습이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나는 베란대를 볼 때마다, 가을바람이 나무를 흔들 때마다 엄마의 처연한 뒷모습이 생각나 견딜 수가 없었다. 다행히 그 집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그 집을 떠나, 나는 이곳저곳으로 세입자로 떠돌다가 드디어 새로운 집을 장만하게 되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8년 후 장만한 내 생애 첫 집, 작고 허름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는 그만한 집이 없었다. 정신없이 이사를 마치고 직장의 업무에 쫓겨 출퇴근을 반복하며 내 집에서 여름을 보내고 첫 가을을 맞이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꿈꾸던 미래는 왜 아직 오지 않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내 삶이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는 것인지, 아무것도 확신이 서지 않은 채 나는 서서히 직장생활에 지쳐갔다. 대학을 졸업한 후 한 번도 쉬 없이 지나온 세월이, 그리고 엄마의 죽음으로 알게 된 삶의 허무함이 더 이상 나를 평범한 일상에 안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계약직 근로자로 살아온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과 엄마의 죽음으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참으로 복잡한 심경으로 가을을 보내고 있었다.

지친 마음으로 오랜만에 휴가를 내고 거실에 누웠다.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그저 흐르는 대로 내 몸을 거실 바닥에 눕혀놓고 눈을 감았다. 급매물로 간신히 돈을 맞추어 산 집이라 처음으로 살아보는 아파트 1층, 맞은편 초등학교에서는 평일 오전 수업이 한창인 듯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간간이 들렸다. 수업 종이 울리는지 종소리가 들리고 이내 아이들의 소리가 잠잠해졌다.

가을바람이 불었다. 풀어 헤쳐진 내 머리카락을 가을바람이 자꾸 건드려 내 얼굴을 쳤다. 선뜻 잠이 들었나 보다. 사무실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다들 일하고 있는데 나는 거실에 누워 가을바람을 느낀다. 상대적 박탈감만 느껴온 내가 지금 이 순간 만큼은 승자가 된 기분이 들었다. 아주 잠깐이긴 했지만 말이다. 또다시 종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이 떠들고 뛰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쉬는 시간이 된 모양이었다. 나는 등이 배겨서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정면의 베란다로 향했다.

정면 베란다에서 보니 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1층이라 나무의 꼭대기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나무 몸통을 보아하니 꽤 큰 나무였다. 나무가 내 집 베

란다에 딱하니 버티고 서 있었다. 나는 무심하게 베란다에 앉아 나무를 바라보았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꽤 오랫동안 그 나무를 바라보았다. 나무는 가을바람에 조금씩 흔들렸다. 나무를 계속 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눈물이 줄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문득, 베란다에 앉아 나무를 바라보던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가 앉아있던 베란다, 엄마가 바라보던 그 나무는 이곳에 없었다. 나는 다른 곳에서 다른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나무를 바라보던 엄마의 심정이 지금 내 심장에 박혀 버린 것 같았다.

엄마는 나무를 바라보며 생(生)의 의지를 다졌을지도 모른다. 가을바람에 살랑이는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엄마에게는 큰 위안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이제야 나는 깨닫는다. 무기력했던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는 나무가 가을바람에 살랑이며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알릴 때 엄마는 그 나무로부터 삶의 희망을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 벌떡 일어나 소송을 준비하고, 죽어가던 난(蘭)을 가져와 살려내 엄마의 삶이 허무함으로 결말짓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투병 중에도 엄마에게 그 나무는 굳건한 의지를 다지는 삶의 희망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 힘든 항암 치료를 견뎌낸 것이 아닐까.

눈물을 닦아내고 나는 다시 거실 바닥에 누웠다. 나는 엄마처럼, 죽어가던 난(蘭)을 살릴 수는 없지만, 엄마의 생의 의지를 가질 수는 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 특성 때문에 늘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언제나 굳건히 그 자리에 서 있다.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는 나무를 누가 무기력하고 수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버티고만 있어도 그게 바로 삶이라는 것을, 거창한 미래가 없어도, 계획이 없어도 그저 버텨내는 것이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엄마의 그 나무가 엄마에게, 그리고 내 앞의 저 나무가 나에게, 온몸으로 알리고 있었다.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엄마의 마지막 뒷모습을 이제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또 쉬는 시간이 된 모양이었다. 다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앞의 저 나무는 여전히 가을바람에 살랑거리며 굳건하게 서 있었다.

끝.